

22nd
WORLD ENERGY
CONGRESS
DAEGU 2013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WEC)의 개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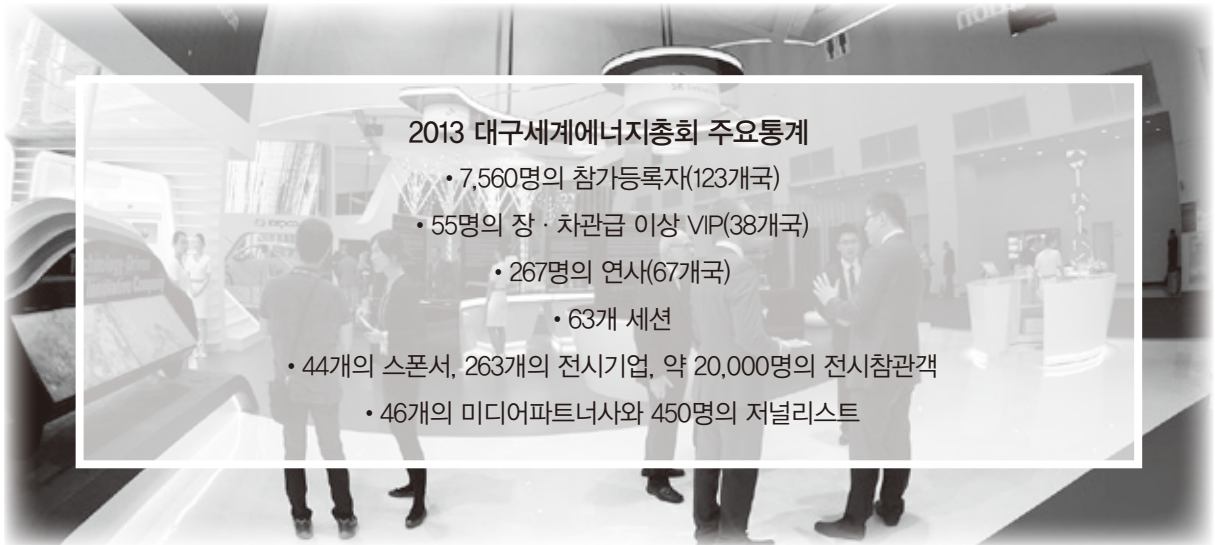


박성철
WEC 조직위원회 홍보마케팅팀장

제22차 세계에너지총회¹⁾가 지난 10월 13부터 18일까지 6일간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이라는 주제로 대구 EXCO에서 성료되었다. 123개국

에서 온 7,500명의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감 속에 막을 내린 WEC는 회의 내용면이나 참가인원수 등에서 역대 최고 회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 : 세계에너지협의회(World Energy Council)가 1924년 이후 3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최고권위의 에너지 국제회의로, 전 세계 100여 개국의 기업과 정부, 국제기구, 학계, 협회 등 모든 에너지 분야의 리더 및 관련자들이 참석해 약 일주일간 에너지 분야의 핵심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이다.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주요통계

- 7,560명의 참가등록자(123개국)
- 55명의 장·차관급 이상 VIP(38개국)
- 267명의 연사(67개국)
- 63개 세션
- 44개의 스폰서, 263개의 전시기업, 약 20,000명의 전시참관객
- 46개의 미디어파트너사와 450명의 저널리스트

이번 22차 대구세계에너지총회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에너지시장 및 이슈에 대한 논의에서 중심으로 부각된 점이다. 세계에너지총회는 지금까지 총 21회가 개최되는 동안 17회가 유럽과 북미에서 개최되는 등 서구중심으로 개최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WEC는 인도(1973년)와 일본(1995년)에 이어 18년 만에 아시아에서 개최되었으며,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이 대거 참석함으로써 총회의 주축이 아시아로 넘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35년 세계원유소비의 90%를 아시아에서 차지할 것이란 전망 등 아시아 에너지 시장의 발전과 역동성을 대변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구도 격변 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현안들이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총회의 관심 주제는 ▲세일가스 개발에 따른 영향 ▲향후 에너지 수요전망과 석유와 석탄 등 기존 에너지원의 장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의 전개방향 ▲미래 CO2 가격의 불확실성 및 관련 이슈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등이다. 이와같이 이

번 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미래전망으로 인해 각국 정부와 에너지 기업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전체 프로그램은 총 6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연설 및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영상연설 등 특별연설(Special Address) 5개, 총회 각 일자별 주제설명(Scene Setting) 4개, 기조연설(Keynote Speech) 4개, 본회의(Plenary) 8개 그리고 주제연설(Spotlight) 세션 42개와 부대회의(Special Event) 12개로 이루어졌다.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삼중고(Trilemma)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에서 우리나라는 WEC가 주창한 에너지 삼중고(Trilemma) 즉 에너지 안보, 사회적 형평성, 환경 영향의 최소화란 3대 난제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로 선언하였고 3일차의 에너지 장관 라운드테이블에서도 Trilemma 극복에 대해 참가국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세계 에너지수요증가에 대한 다각적 노력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른 석탄, 석유와 같은 기존화석연료의 공급과 가스원 확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에너지시장의 판도 변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셰일가스 공급 확대에 따른 아시아 LNG 시장의 성장에 대해 논의되었다.

○ 정부의 일관된 에너지정책

많은 에너지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함에 따라 장기투자에 소극적인 문제가 있어왔다. 이

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국 대표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원자력 안전 국제규범 확립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신뢰를 잃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국가별로 상이한 안전규정을 상호 보완하고 국제적 표준모델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전력산업의 환경변화

향후 전력시장에서 스마트그리드가 미칠 영향력과 동북아 3개국을 연결하는 슈퍼그리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에너지 효율성 증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연구와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역사회 협력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진행을 지연시키는 원인의 70%는 기술적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의 갈등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제3세계 에너지 설비투자 활성화

세계 인구의 40%가 에너지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에너지 보급확대를 인류의 기본권 확대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대구세계에너지 총회의 가장 큰 성과는 전 세계 에너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 에너지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는 점이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총회연설을 통해 “이렇게 다양한 행동가(actor)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인 에너지 회의는 없었다”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에너지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에너지업계에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7,500명이 모인 WEC 9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회는 세션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와 미팅으로 양자 간, 다자간 교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수많은 정부 및 기업 간 MOU 체결은 물론 외교부의 동북아에너지 안보포럼 등과 같은 포럼 등을 통한 글로벌 협력채널이 구축되었다.

성공적인 WEC 개최로 인해 국내 에너지분야의 국제적 위상은 제고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연설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에너지장관회의 주관, WEC 총회사상 처음으로 채택된 대구선언 등과 같이 에너지 정책 방향과 비전 등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나감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에너지산업전시회를 통해 세계에서 모인 에너지 관계자들에게 국내의 선진 에너지기술을 보여준 의미있는 글로벌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들이 대구세계에너지 총회를 통해 얻어진 세계적 네트워크와 높아진 인지도를 활용한 에너지 관련 논의와 비즈니스의 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